

“본문주석” 잡 11:1-31

<16-22절 : 두 가지의 결과>

1) 16절과 22절은 외적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데
“여자”에 대한 금언(주제상 분리될 수 있음)

- 이 주제는 앞으로, 뒤로도 연결되지 않음
- 대조법이라고 말할 수 없음

2) 17-21절은 주제상 서로 밀접히 관련됨

- 여러 이러저러한 종류의 삶의 방식들의 결과(론)

“본문주석” 잡 11:1-31

a. 17절 :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영혼과 몸에 미친 결과

⇒ 영혼의 이득과 몸의 해로움

b. 18절 : 악인의 허무와 공의로운 자의 상

c. 19절 : 생명과 사망에 이르는 삶

d. 20절 : 야웨 하나님의 평가 - 하나님의 미움과 기쁨

e. 21절 : 벌과 구원

“본문주석” 잡 11:1-31

<16~17절>

16)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7)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 16절

- ① **남자와 여자의 비교**는 잠언에서 오직 이 곳뿐
 - 내용상 반대형, 대조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 서로 다른 행위-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님
 - 서로 다른 두 인간존재의(긍정적) 결과

“본문주석” 잡 11:1-31

⇒ 19:13에 남/녀의 비교가 나오지만 약간 다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② “유덕한 여자”

- . 이 단어는 22절의 “아름다운”과는 달리 **내적인 아름다운 여자**를 말함 = <품위 있는 여인>
- . 31:30은 아름다운 여인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라고 칭찬

“본문주석” 잡 11:1-31

③ “근면한 남자”

- 원뜻은 “힘이 있는 남자 / 타인을 두렵게 하는 팔꿈치의 소유자

④ “재물을 얻는다”

- 여기에서와는 달리 재물의 무용성을 말하기도 함 (11:4; 22:1)
- But 10:15절은 재물 소유의 좋은 점을 말함

“본문주석” 잡 11:1-31

- 17절

- ① “인자한 자”

-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人일 수도 있음
 - 상호 간, 타인에 대한 전적인 사랑

- ② “자기의 영혼”

- 새번역 : “자기의 생명”으로 번역
 - 히브리 人에게는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 분리가 x
 - 몸의 상실(병)이 곧 죽음이며 영혼의 상처도 곧 죽음

“본문주석” 잡 11:1-31

③ “자기의 몸”

- 영혼과 결합되어 人 전체를 표현하려는 이분법적 (헬라적) 표현이 아님
- 오히려 人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
- 즉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로 본 人(전 인간)
- 이 단어는 5:11에만 한 번 더 등장

“본문주석” 잡 11:1-31

☞ 17절의 핵심 : “人 자신의 행위는 언제나 항상 자신에게로 그 결과가 돌아간다”

- 물론 기독교의 복음은 + a(하나님의 은혜)
- 비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 고대 이스라엘人이 생각한 철학적 신학임

↳ 하나님을 지배하는 세계질서의 규칙성을 고백한 것

“본문주석” 잡 11:1-31

-18~19절

18)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
니라 19)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
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 18절

- ① 21절까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 모습이 등장
- ② 전반절-하반절 같이 분사형으로 구성, 행위-결과의 관계가 매우 강조

“본문주석” 잡 11:1-31

③ “(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 샅 = 이 단어의 동사는 “행하다, 만들다”

- 허무 = 거짓, 사기

∴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④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 직역하면 “의를 뿌리는 자는 진리, 진실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 상 = 보상, 보답, 임금

- 확실 = 진리, 진실

“본문주석” 잡 11:1-31

- 19절

① !K, -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음

- . 18절과 연결시키면 “그래서, 그 때문에”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 . “의인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죽음(사망)에 이른다”

“본문주석” 잡 11:1-31

⇒ 구약의 인간 이해 중 하나

의인은 행복하고 장수하게 되지만
악인은 불행하고 요절(횡사)한다.

창세기의 원역사에 나오는 人의 수명



죄의 도입, 진행과 더불어 人의 수명은 줄어듦
(죄로 인해 人의 육체는 강력한 신체적 약화를 경험)

“본문주석” 잡 11:1-31

-20~22절

20)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 20절

① 1절과는 달리 “야웨-혐오” 형식이 문장 처음에 등장

“본문주석” 잡 11:1-31

② “마음이 굽은 자”

. 마음 = 사고, 생각, 숙고의 중심이며 행위로 이끄는 동인

→ {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결정을 하는 곳
내적인 인간, 본인 자신을 의미

③ “행위가 온전한 자” : 직역하면 “길이 온전한 자”

☞ 20절의 핵심 : 마음(=행동)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본문주석” 잡 11:1-31

• 21절 : 선악의 보응은 불변한다는 것

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 직역하면 “손에 손을 잡고”

- 악인 상호간의 깊은 서약, 결탁 : 악인의 폭력

② “의인의 자손”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씨/종자”는 후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

-오해의 가능성 : 죄의 유전처럼 의도 유전?

-그래서 70인역은 “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으로 번역

“본문주석” 잡 11:1-31

- 22절

① 내용적으로 17-21절과 다르며 형식적으로도 반대,
대조형이 아니라 **비교형**

→ 동물세계의 모습을 人 세계의 모습과 비교

②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 직역하면 “신중하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

“본문주석” 잠 11:1-31

⇒ 즉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외적인 아름다움)이라도
신중함이 없다면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은 인생

조롱조의 비꼬는 금언 - 잠 31:30의 내용과 일치

☞ **이성과 도덕적 분별이 없는 여자(미인)는 무의미**

③ “돼지 코”

-돼지는 가장 더럽고 추한 짐승이며 그래서 부정하고 제사드릴 수 없는
짐승(레 11:7; 신 14:8)

“본문주석” 잡 11:1-31

④ “금고리”

→ 이것은 **코**나 **귀**에 하는 ring

. 고대 이스라엘 인 + 현재 베두인들은 귀뿐 아니라 **코에도 링을 했다**

. 창 24:22, 30, 47 -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준 선물에도 속함

사 3:21 - 이사야 시대에도 코걸이 사용

겔 16:12 - 주전 6세기 때도 사용